

다시 한 번 ‘미래도서관 담론’에 대하여

김정근* · 김영기**

目 次

I. 단 면	III. 예측에 대한 검토
II. 변화에의 예측	서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매체의 변화	인쇄매체는 소멸할 것이다
서비스방법의 변화	전자매체가 효과적이다
조직의 변화	전자매체가 경제적이다
기능의 변화	IV. 순진함과 단순함으로부터의 탈출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	참고자료

I. 단 면

단면 하나

필자들은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중에 김영기는 박사과정의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부산지역의 한 국립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이다. 그가 속한 대학에서는 얼마 전 총장선거가 있었다. 전에 도서관장을 역임했던, 그래서 그가 잘 아는 원로교수 한 분도 출마했다. 이 후보는 김영기에게 이 대학 도서관의

장기발전 계획과 더불어 공약이 될 만한 것을 부탁해 왔다. 그는 이를 이 대학 도서관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심사숙고하여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기본장서(core collection)의 확보이며, 다른 하나는 도서관의 전산화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여기서 기본장서의 확보에 좀 더 많은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그 교수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전자도서관이라는 말을 아는 그 교수는 미래에는 책도 전자화 되어 출판될 것이며, 도서관이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전산화만 되면 장서부족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전산화, 특히 랜(LAN) 구축 문제와 CD-ROM 등의 전자화된 자료의 확보 등을 좀 더 보강해서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다. 김영기는 기본적인 장서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도서관의 현실에서는 아무리 도서관이 전산화되더라도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교육에 관련된 도서관적 역할을 해낼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 총장후보가 굳게 믿고 있는 전산화·정보화의 마력을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단면 들

얼마전 필자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서 한 사람이 “사서직 공무원 중견 실무자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돌아왔다. 그에 따르면 교육 내용 중에 요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한다.

다음 중 미래 도서관의 모습이 아닌 것은?

- ① 벽이 없다. ② 사서가 없다.
③ 책이 없다. ④ 건물이 없다.

이 문제의 답은 ②번이란단다. 미래의 도서관은 벽도 없고 건물도 없�지며, 그리고 책도 없�지게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온 셈이다.

필자들은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언뜻

단순해 보이는 두 개의 사례를 들어보았지만 이런 식의 반응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날로 새로운 성능의 퍼스널 컴퓨터(PC)가 출현하고 인터넷을 모르면 정보화된 미래사회의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기사가 언론에 넘쳐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하나같이 정보화와 전산화를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여기서 든 첫 번째의 사례는 우리사회의 지도급 인사가 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중견 사서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직무교육 내용의 일부이기에 그 의미는 결코 단순한 것일 수만은 없다.

이 글은 미래도서관에 대해 폭넓게 일고 있는 문헌정보학계의 논의들¹⁾을 중심으로 그 주된 내용을 파악해 본 다음,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관점으로 다시 검토해 보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의 본질을 보다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더니티(근대성)라든가 탈식민성, 지식사회학 등의 보다 큰 담론 틀의 도입이 요청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와 같은 틀의 도입은 아주 부분적인 데 그치고 있다.²⁾

1) 이 글에서는 관찰대상이 되고 있는 논문들을 그대로 드러내기 보다는 ‘논문 A’, ‘논문 B’ 따위의 형식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그 이유는 이 글 자체가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몇 편의 특정 논문들에 대한 관찰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논문들을 토대로 우리 학계내의 하나의 커다란 흐름에 대한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는 미래 도서관의 모형이라든가 전자도서관, 또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도서관 등의 문제에 관련된 최근의 논문들이라는 점만 밝혀둔다.

2) 이와 관련된 논의들로서는 조혜정 등의 탈식민성 관련 담론, 김정일 등의 모더니티 관련 담론, 클리포드 스톨이나 조환규 등의 정보통신 관련 담론 등을 들 수 있으며, 보다 도서관 문제에 근접된 자료로서 이를 실천성과 적실성의 문제와 결부시킨 김정근의 글들과 전국사서협회소식 제5권4호(1996. 3)에 실린 이수상, 조양근, 이용훈의 글 등을 꼽

II. 변화에의 예측

지난 해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몇 번의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정보화를 부르짖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듯 ‘미래형 도서관 모형개발’, ‘정보사회를 대비한 도서관개념’, ‘전자도서관화 방안’ 등의 어구들을 키워드로 하는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글들은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미래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또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발표자들 역시 외국에서 정보학을 연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학계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룹에 속한다는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들이 관심을 두는 이러한 논문들은 다가올 21세기는 정보사회로서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 양도 엄청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별다른 의심 없이 도서관 현상에 대입하여 논지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즉, 도서관의 자료가 인쇄매체 중심에서 전자매체 중심으로 변화하고, 전자적 문헌제공 시스템으로 도서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미래도서관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이들 논문에서는 “최근에 외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전자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가상도서관 / virtual library’, “가상현실도서관 / virtual reality li-

brary’ 등”³⁾을 미래도서관의 모형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삼아 오늘날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전자매체 중심적인 기반 위에서 도서관의 구성요소인 도서관자료, 이용자의 이용형태, 도서관의 기능, 자료의 처리 및 획득방법 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있다.⁴⁾

이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매체의 변화

우선 이러한 담론들에서 미래의 도서관이 오늘날의 도서관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매체의 변화이다. 즉 인쇄매체 중심적인 도서관자료가 전자매체 중심의 도서관 자료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 몇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도서관자료는 인쇄매체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결과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도 도서중심이었다. 교수 및 학생들의 정보요구 형태도 인쇄매체 중심적이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학술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구입하여 도서관에 비치하였다. 그러나 정보의 폭발적인 생산, 자료생산비의 증가로 인한 자료구입비용의 증가, 도서관예산의 감소, 자료보존 장소의 증가 등 논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대학도서관에서 필요한 학술정보를 모두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

을수 있을 것이다.

3) 논문A, p.4.

4) 여기에는 미래형 대학도서관 모형으로서 장서기준 모형, 직원기준 모형, 조직모형, 예산모형, 도서관건물 등이 제시되어 있다.

능하게 되었다. ... 이 시점에서 21세기 대학도서관의 모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인쇄매체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전자매체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논문A, p.3)

대부분의 도서관업무는 전자형태로써 이루어질 것이고 종이형태의 자료들은 최종출력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다. (논문A, p.11)

이러한 언급은 미래도서관 담론의 곳곳에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논문이 기대고 있는 출발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연구자들은 인쇄매체가 전자매체화 한다는데 대해 거의 확신을 갖고 글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장서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간혹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때의 장서개발 역시 전자매체에 주안점을 둔 것임을 문맥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최근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paperless" 또는 "bookless"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의 장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될 것이다. (논문A, p.43)

앞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지만 도서관이 전자매체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근거의 하나로서 대학도서관의 장서가 대부분 인쇄매체 중심적일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도서를 보관하기 위한 서고공간의 계속적인 증가, 둘째 정보의 최신성 결여, 셋째 자료구입비의 증가, 넷째 자료정리비용의 증가, 다섯째 자료보존을 위한 대책 필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⁵⁾

서비스방법의 변화

두번째로 이러한 논의들이 기대고 있는 논리는 지금까지의 도서관은 장서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기준이었지만 다가올 21세기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세기의 대학도서관의 평가는 장서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기준이었지만 다가올 21세기의 대학도서관의 평가기준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어떻게 접근시켜 줄 것인가로 변할 것이다. (논문A, p.3)

이러한 예측에 근거하여 21세기 대학도서관은 인쇄매체로 된 자료가 한 권이 없어도, 오늘날의 대학도서관과 같은 거대한 건물과 공간이 없어도 학술활동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⁶⁾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학술정보의 공유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인쇄

5) 논문A, p.4.

6) 논문A, p.5.

매체로 된 장서라든가 거대한 건물 없이 학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 시스템으로서 전자적 문헌제공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자적 문헌제공 시스템/Electronic Document Delivery System은 종래에는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제공하던 정보를 전자적으로 복제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도서관 상호대차나 원문복사제공서비스에 대한 매우 충격적인 대체방안으로서…(논문A, p.48)

여기서 이와 같은 전자적 문헌제공 시스템이 실현된다면 첫째, 원문제공이 매우 신속하며 즉각적이고, 둘째, 원문이 결코 절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며, 셋째, 국가 내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고, 넷째, 원문이 대출되지 않으므로 항상 제공이 가능하며, 다섯째, 이용자의 신청에 대한 분석조사를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여섯째, 원문전부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원문을 훑어볼 수 있는 점 등을 그 장점으로 들고 있다.

조직의 변화

한편 미래도서관 관련 담론들은 도서관이 정보기술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서

관 조직구조 내에서 인력구조와 직무구조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직체계의 변화로서 예견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학술정보센터의 설치와 학술정보망의 구성⁷⁾, 그리고 one-person-library의 조직개념의 도입⁸⁾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서관의 서비스기능을 향상시키고 정보사회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도서관 조직이 전산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정보통신과 컴퓨터의 개념과 기능이 부여된 새로운 형태의 정보전산화조직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⁹⁾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요즘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도서관의 전산화와 이들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술정보망과의 차이이다. 즉 오늘날의 대학도서관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전산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쇄매체 중심의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에서 제시하는 21세기 대학도서관의 모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¹⁰⁾ 또한 현재의 도서관 전산화 추진사례들은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정보의 공유와 유통을 위한 체제라고 볼 수 없으며 다만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망¹¹⁾으로 보고 있다.

7) 논문A, pp.27~42.

8) 논문B, pp.82~85.

9) 이들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도서관의 조직모형을 여기서 다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논문 A에 따르면, 미래 도서관의 조직모형은 조직단위의 통합, 장서와 서비스의 집중화와 이용자의 분산화, 계층화와 수평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한다.

10) 논문A, p.9.

11) 같은 글에서 연구자는 현재의 도서관 전산망이 미래의 학술정보망과 다른 점으로서 첫째, 도서관간의 협력을 통한 업무경감이 주목적이다; 둘째, 정보의 범위가 일반교양에서부터 전문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정보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셋째; 이차정보중심이기 때문에 원문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넷째,

기능의 변화

다음으로 21세기에는 (대학)도서관의 자료가 전자매체중심으로 변한다는 전제하에 그에 따른 기능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수서업무는 전자수서체계로 변할 것이며,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대학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선정하여 다운로드를 받고 그에 따른 대금은 전자결제를 하여야 한다.

둘째, 정리업무를 위한 분류전문가시스템과 목록작성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며, 대학도서관은 자관에 소장되어 있는 학술정보를 가공하거나 편집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21세기의 대학도서관의 정보생산은 컴퓨터에 의한 전문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될 것이다.

셋째, 정보조사제공 역시 21세기 대학도서관에서의 정보조사제공은 맨-머신 인터페이스(man-machine interface)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이용자들의 정보검색 경향이 사서에 의한 간접검색에서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직접검색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넷째, 또 다른 도서관의 기능으로서 번역서비스가 많이 요구될 것에 대비하여 기계번역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도서관업무의 90% 이상이 21세기에는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¹²⁾

참고로 이처럼 달라질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사서의 조건과 대우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전문사서는 최소한 학부에서 문헌정보학이나 주제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원과정에서 주제분야나 문헌정보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가가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교수신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논문A, pp.6-9)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

지금까지는 주로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의 미래도서관론자들이 내 놓은 전망에 대해 살펴 보았다. 즉 도서관의 자료가 전자매체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며, 서비스 방법도 소장 보다는 접근에 치중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따라서 도서관의 조직이나 기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현재와는 판이한 새로운 모형이 제시된 것이었다. 이러한 미래도서관의 모형은 현재 모습의 변화·발전이라기 보다는 단절에 가까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는 우리 학계의 그룹들이 문헌정보

대학이나 전문도서관보다는 공공도서관 중심의 도서관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단행본 위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때문에 최신정보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여섯째, 정보처리를 위한 표준화를 도입하고 있지만 전문 및 멀티미디어에 관한 표준화가 결여되어 있다; 일곱째, 지역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논문A, pp.39~40)

12) 논문A, pp.6~9.

학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1995년에 있었던 한 학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의 서두에 제시된 몇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인용해 보기로 한다.

첫째, 그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이 우리의 풍토에서 고유성을 지닌 단일 학문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는 그간 이론과 현실의 괴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학계는 너무 오랫동안 외국의 지식을 여과없이 수입하는 데만 급급하여, 우리의 현실에서 문헌이나 정보와 관련된 문제 및 정보서비스 기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나 방법의 창조와 생산이 부진한 상태에 놓여있다.

둘째, 문헌정보학의 현장업무인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발전과 운영에 어떠한 공헌을 하고 있는가? 문헌정보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장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최근에 문헌정보학 본질의 추구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특정한 기법의 선호풍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문헌정보학의 실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고도기술이나 첨단과학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이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본질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의 짧은 역사, 무분별한 외국이론의 수용, 자체 생산의 결여, 학문의 본질적인 성격 규명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진정한 정보의 속성, 처리, 활용 및 봉사와 관련된 현장과 상호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연구

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셋째, 21세기 정보사회를 대비하는 정보관리자의 교육을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사회 전반적인 체제의 정보화현상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이 정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됨에 따라 개개인의 정보수요에 적합한 정보원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전문가의 역할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과거의 문헌정보학 교육의 제 측면과 현상을 평가해 봄으로써 종래의 문헌중심 봉사에서 정보중심 봉사형태로 변환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보전문가의 역할, 자질과 교육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논문C, p.10)

사실 우리의 풍토에 적합한 학문, 이론과 현실의 괴리현상, 현장개척에 도움이 되는 학문, 외국이론의 무분별한 수용, 학문의 실천성 부족 등의 문제는 80년대 후반 이래 여러 해에 걸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교수진과 대학원 학생들의 모임인 공동작업실 멤버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며, 이제는 조금씩 구체성을 띠기 시작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에 대해 꼼짝도 하지 않던 문헌정보학계가 조금은 부산대학교 주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한 학회의 문제인식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현단계 한국의 문헌정보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자기반성의 정도를 읽게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문헌중심의 봉사가 정보중심의 봉사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 사서를 정보관리자 또는 정보전문가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문헌정보학이 고유하게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정보유통과 정보활용의 차원이라는 점 등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 역시 앞에서 살펴본 몇편의 논문과 동일한 미래전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의 첫째와 둘째 부분의 문제인식은 피상성과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논문 전체를 지속시키는 인식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바로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된다.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기술발달의 영향으로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구분에 대한 타당성이 없어진 현 시점에서 두 분야에 대한 차별적 연구는 오히려 문헌정보학 학문자체의 성격규명에 모순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문헌정보학이 고유하게 지향하고 있는 정보유통과 정보활용이라는 차원은 도서관이라는 기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 정보학 + 서지학”으로 개념을 일원화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전개방법에 있어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정보학과 서지학 연구에 대한 개념과 이론 및 실재를 중점적으로 고찰한 후 두 영역을 종합화 한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논문 C, p.12)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당시의 학술발표회장에서부터 강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참고로 일부분을 옮겨보기로 한다.

우리가 도서관학이란 이름으로 적어도 1세기 동안 진행되다가 근래에 와서 문헌정보학으로 바꾸었는데, 모체인 도서관학은 빠지고 정보학/서지학만 이야기 되니까 이상하다. 아마 연구자들이 정보학 전공자이기에 그런 것 같아 보인다. 목차 속에서 도서관학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도서관학을 빼놓고 문헌정보학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도서관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고 연구해왔다. 나는 도서관학이 모체이고 정보학이나 서지학은 하나의 가지라고 본다. 어떻게 보면 정보학은 하나의 수단이지 정보학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정보학은 1960년대 이후 우리분야에 도입된 것이다. 목록전산화, 고서전산화가 정보학이라는 이런 사고는 틀렸다. 철학에 컴퓨터가 응용된다면 이것이 정보학인가?...¹³⁾

III. 예측에 대한 검토

여기서 다시 현장과 친숙한 필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 이러한 사례들이, 이러한 논문들이 필자들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의 도서관들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인가? 소장 보다는 접근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해 이용자를 실망시킨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의 수작업 형태로도 약간 더디다고는 하지만 소장하고 있는 자료라면 얼마든지 찾아줄 수 있다. 오히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없는 것이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용자의 요구

13) C 교수 질문요지(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 1995. 11. 10).

가 절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다른 대학의 도서관에 온라인 검색을 시도해 보지만 한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다른 대학의 도서관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있다고 해도 그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손에 넣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아니면 직접 그 도서관으로 가서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험은 기본적인 자료는 접근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장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인쇄매체 중심의 자료에서 전자매체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된다는 주장 역시 필자들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자료를 전자화 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적·경제적인 부분, 그것의 이용과 관련된 인간의 습관과 태도, 자료에 대한 검증과 신뢰도, 윤리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문들이 기대고 있는 근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여 전체를 조망하지 못한 측면은 없는가? 여기에 일부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아무런 검증작업도 없이 그대로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에 대입하려는 순진무구함이 서려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특정한 기법을 선호하는 우리학계의 풍토가 여기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지는 않은가? 여기서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서구에의 기댐, 인쇄매체의 소멸과 전자매체에 대한 과신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서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논리는 우리 학문의 주체성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즉 우리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서구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려 한다면,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일단은 흉내를 내어 보려고 하는 서구지향성, 또는 서구추수성의 일면이기도 하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전제나 현실을 무시한 채 전체 이론의 일부분만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다음은 이러한 논의들이 대표적으로 서구를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지금 서구에서 급속한 속도로 진행중인 도서관 환골탈태의 특징은 세가지로 요약 가능한데 첫째, 도서관에서 책이 사라지고 있다. 둘째, 이용자가 굳이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셋째, 지구촌 어느 곳에 있는 도서관이든 이용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단적으로 말해 종래의 도서관이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다다랐고 그 새로운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다.(논문D, p.115)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최근 몇 년 간에 걸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여러 편의 논문이 생산되어 있으므로¹⁴⁾ 여기에서는 상술하지 않기로 한다. 오히려 이들이 등에 업고 있는 도서관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기술만능주의와 인쇄매체의 종말

을 예고하는,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순진하면서도 단순한' 몇몇 전망과, 그러한 '꿈의 전망과 결과'를 철저히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몇몇 도서관인들에 의해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사실¹⁵⁾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책이 단행본으로 여러권 출판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책들은 대부분 미국 도서관계의 거장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대거 필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한다면 서구에 기대고 있는 이러한 논리의 아류성, 또는 허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필자들의 주변에 입수되어 읽혀지고 있는 책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Crawford, Walt and Gorman, Michael.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and London : ALA, 1995.

Buckland, Michael. *Redesigning Library Services : a Manifesto*. ALA, 1992.

Harris, Michael H. and Hannah, Stan A. *Into the Future : the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Post-industrial Era*. Ablex, 1993.

Stieg, Margaret F. *Change and Challeng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LA, 1992.

Roszak, Theodore. *The Cult of Information : a Neo-Luddite Treatise on High Tec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True Art of Think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인쇄매체는 소멸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대로 ‘인쇄매체의 소멸’과 ‘전자매체로의 대체’라는 것은 미래도서관을 논하는 모든 논의들의 출발점이자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도서관의 자료가 전자매체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서만 미래 도서관론자들이 말하는 소장에 대한 접근 우위라든가, 벽과 건물의 해체, 조직모형 등의 미래상이 성립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Walt Crawford와 Michael Gorman이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Chicago and London : ALA, 1995)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인쇄매체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사라지고 있지도 않다. 또한 미래에 인쇄매체가 사라진다는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인쇄매체가 가까운 미래에 전자매체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¹⁶⁾

14) 특히 다음과 같은 글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 한울, 1995.

김정근, 김영기. “문헌정보학연구에 있어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도서관학논집. 제22집(1995). pp.27~59.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학기논고집. 제1집(1991) - 제6집(1996).

15)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and London : ALA, 1995. p.v.

16) 위의책. pp.14~15.

전자매체의 지지자들은 도서, 잡지 신문 등의 인쇄매체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반증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다. 즉 도서관매량의 지속적인 증가, 인쇄·출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공공도서관 도서대출량의 증가 등이 그 사례들이다.¹⁷⁾

그러나 일부의 인쇄매체들이 전자매체로 대체되어 갈 것임은 예상할 수 있다.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신속성 등¹⁸⁾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전자매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작은 단위로 이용되고 신속성이 강조되는 인쇄물들, 즉 사전, 색인, 판보, 연감류 등의 참고도서와 통계자료 등이라든지, 이용이 드문 전집류, 과월호의 연속간행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 범주에 드는 것은 미래학자들이 믿는 것보다는 그 양이 훨씬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따라서 미래의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매체를 사용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전의 수단들은 강화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향상되어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기존의 매체는 서로 입장일단이 있으므로 상호보완적 의미에서의 선택적 사용이 효율적이다.²⁰⁾

“전자매체가 효과적이다”

미래 도서관론자들은 항상 인쇄매체에 대한 전자매체의 우위를 주장한다. 이 때에는 전자매체가 갖고 있는 정보전달의 신속성이 동반되며, ‘소장 보다는 접근’이라는 논리도 여기서 파생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전자매체와 인쇄매체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이를 Mortimer Adler가 말하는 ‘마음의 네가지 자산(the Four Goods of the mind)’을 통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²¹⁾

Adler는 인간의 마음은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 이해(Understanding), 지혜(Wisdom)로 나누어지며, 지혜 쪽으로 갈수록 보다 큰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했다. 여기서 정보는 사실 혹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원시적인 요소인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유용성을 갖게된 정보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의미를 갖게 변형된 것이 지식이며, 세계의 시각과 개인적인 전망이 통합된 지식, 즉 완전히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을 이해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지혜는 완전하며 일반적인 이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가장 작은 가치를 지닌 정보가 핵심처럼 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미래도서관의 논의가 정보의 신속한 전달에만 치중하게 된 것이라는

17) 위의책. pp.15~16.

18)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좀 더 논의될 것이다.

19) 위의책. pp.54~55.

20) 위의책. p.9.

21) Mortimer Adler, *A Guidebook to Learning*. New York : Macmillan, 1986. pp.110~134.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앞의책 pp.4~7에서 재인용.

설명이다.²²⁾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서관은 데이터와 정보의 단순한 보관소 이상이라는 것을 사서들은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서관은 금방 나온 뉴스나 원자료 보다는 누군가가 조직해 놓은 정보를 주로 다룬다. 데이터와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도서관의 중요한 기능이지는 하지만 분명히 전부는 아니다. 도서관은 학습의 장소이며 그 안에서 지적으로 변하는 곳이다. 또한 도서관은 오락과 뜻밖의 황재와 현실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 계기와 모든 인간정신의 진수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²³⁾

물론 전자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된다. 원문이나 숫자, 시각정보 등의 데이터나 작은 단위의 정보들은 전자적 방법이 효율적이며, 지식과 대규모의 축적된 정보의 전달매체로서는 인쇄매체가 탁월하다. 따라서 도서관은 단기적인 정보의 빠른 유통에만 큰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유용한 기록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⁴⁾

한편 종이의 모니터 상의 텍스트를 비교해 보아도 전자매체의 효율성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모니터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빛으로 인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해상도 또한 인쇄매체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그리고 스크린으로부터의 독서는 인쇄지면으로부터의 독서보다 수배 더 느리며,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²⁵⁾

이에 반해 인쇄매체는 분해와 재생산을 위한 가장 유용한 매체이다. 종이는 완전히 랜덤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고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다. 또한 갖고 다니기 쉽기도 하다. 따라서 종이는 여전히 고도의 사고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²⁶⁾ 책은 이러한 이유로 살아남을 것이고 계속 번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²⁷⁾

이와 함께 전자매체는 신빙성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즉, “전자매체에서 그 확실성은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인터넷상 데이터의 익명성은 또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권위 있는 평가나 정보원에 대한 신뢰의 부족의 문제와 질적인 면에서의 의심스러움에 대해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²⁸⁾도 함께 풀려야 할 과

22) 이와 관련된 논의로서 다음의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란 것은 뿌리없는 지식의 파편으로 그것 자체로는 사람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흩어지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할 뿐이다.” (녹색평론. 제28호(1996. 5~6). p. 7); ‘50톤의 콘크리트가 고층건물이 아니듯... 정보가 지식은 아니다.’ (클리포드 스톨, “인터넷은 만병통치약인가”, 녹색평론. 제28호(1996. 5~6). p.55).

23)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앞의책. pp.117~118, pp.124~125.

24) 위의책. pp.10~11, p.18.

25) 위의책. pp.19~22.

26) 위의책. pp.14~15.

27) 이와 관련하여 조환규의 풍자를 하나 소개해 보기로 한다. “만일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를 워드로 작성하셨다면 장담컨데 그것을 우리가 해독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폴레옹이 발견한 로제타 스톤에 새긴 글씨는 이천년이 지난 오늘에도 생생히 읽을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단단한 돌에 힘들게 새긴 공은 여태까지도 보상을 받는다.”(조환규, “연필과 컴퓨터”, 녹색평론. 제28호(1996. 5~6). p.24).

28)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앞의책. pp.78~80.

제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전자매체가 경제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를 들며 인쇄매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빠뜨린 부분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예로서 전자정보를 얻는데 드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무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전자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에 관련된 비용만 보더라도 무시하기 어렵다. 컴퓨터 하드웨어의 비용은 낮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의 발전에 따른 상대적인 비용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²⁹⁾ 또한 전 세계의 기록된 정보의 5% 정도만이 전자형태라는 점과, 그 양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인쇄매체를 전자매체로 변환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의 문제와, 시간, 저작권, 신뢰성 등의 제한을 크게 받는다는 점³⁰⁾이 전자매체가 경제적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람들은 인쇄의 경제성에 대해 잘못된 가설로 인쇄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쇄매체의 실질적인 잇점과 경제성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결코 전자출판이 비용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전자매체가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보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또하나의 근거로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라는 말은 과장된 것이며 오히려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³¹⁾ 정보의 폭발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해 데이터의 폭발이라고 해야 옳다는 것이다. 이것은 쓸데없는 데이터가 매 5년마다 두배가 될 지는 모르지만 유용한 정보는 오히려 수없이 쏟아지는 데이터의 처리에 밀려 줄어들고 있을지도 모르며, 또한 데이터의 과대생산이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IV. 순진함과 단순함으로부터의 탈출

기술광신주의자(Technolust)라는 말이 있다. 이들은 가장 최신의 것에 대한 과도한 환상과 새로운 것에 대한 터무니없는 확신을 그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³²⁾ 도서관에서의 기술광신주의자들은 전자자료는 인쇄매체보다 더 우위에 있으며, 자연과학 자료가 인문과학 자료보다 더 고급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인식은 도서관의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례 깊고 경험 많은 사서들까지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해 버리는 견해에 굴복하게 만든다.³³⁾

기술광신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³⁴⁾

첫째, 미래의 새로운 기술과 현존하는 기술의

29) 위의책. p.97.

30) 위의책. p.90.

31) 위의책. pp.73~74, p.80.

32) 위의책. p.36.

33) 위의책. p42.

도태에 대해 아주 극단적인 예측을 하며, 그 결과로 합리적인 계획을 더 어렵게 만든다.

둘째, 다른 관점에는 귀를 쉽게 기울이지 않는다. 다른 관점은 낡고 퇴보된 것으로 간단히 처리해 버린다.

셋째, 실제 사회의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넷째,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새로운 기술에 뒤떨어지지 않고 따라가는데 아주 능숙하다. 그러나 일상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그다지 능숙하지 않다.

Crawford와 Gorman은 도서관의 적들³⁵⁾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다. 인쇄물은 부적절하고 소멸될 것이라고 여기는 미래학자들, 도서관직을 평가절하시키는 도서관 내부의 사서들과 도서관학 교육자들, 그리고 사서를 정보전문가로 바꾸려는 사람들—사서를 정보전문가로 부르는 것은 정보제공이 사서들의 유일한 기능이라는 것을 암시한다—이 바로 그들이다. 현재 도서관과 사서가 장서와 관련해 직면해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총괄해서 단일의 거대한 해결책(grand solution)을 제시하는 식의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쉽게도, 송구스럽게도, ‘기술광신주의’라든가 ‘도서관의 적들’이라는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앞에서 살펴본 우리 주변의 많은 미래 도서관론자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 어쩌면 아쉬

움의 차원을 넘어 위험지경에 다다랐는지도 모른다.

성공적인 미래의 도서관을 바란다면 인간과 지역사회를 위한 인간적인 봉사가 도서관이 존재하는 근본이유라는 점과, 데이터와 정보가 아닌 지식과 이해가 도서관들의 주된 관심사라는 점³⁶⁾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정보와 사실에 대한 전달이 아니라, 사서의 자상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부디, “미래도서관”에 대한 저 숙진하고 단순하고 성급하고, 그래서 가벼운 담론들을 이제 이쯤서 멈추고, 진정으로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옷깃을 여미고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서구의 논리를 차용하면서, 이 논리마저 극복할 수 있는 자생적인 논리의 개발을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거의 모든 도서관들은 특수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긴요한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인쇄물과 다른 매체로 구성된 특정한 장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정한 실물장서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성공적인 미래도서관은 원격자원에 대한 접근과 연계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실수요를 충족시키며,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수용하는 실물장서를 구축하게

34) 위의책. pp.42~43.

35) 위의책. pp.105~106.

36) 위의책. p.182.

될 것이다. 도서관들은 소장하고 있지 않은 실물자료에 대해서는 접근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접근에 따른 위험부담, 비용, 혜택을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서들과 도서관을 재정적으로 후원하

는 사람들은 도서관의 자료와 자원을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가지의 획일적인 해결책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그들은 모든 도서관자원은 전자형태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생각은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미래는 소장과 접근이 공존하는 시대인 것이다.³⁷⁾

참고자료

김경일. “중세의 정신, 근대의 문명”, 역사비평. 제29호(1995 여름). pp.57-71.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한울, 1995.
 김정근, 김영기. “문헌정보학연구에 있어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도서관학논집. 제22집(1995). pp.27-59.
 녹색평론 편, “컴퓨터기술의 세계-재양인가 구원인가”, 녹색평론. 제28호(1996. 5-6). pp.3-87.
 동아일보사 편. “모르면 죽는다? ‘정보화 거품’ 지나치다-‘조급증 사회’가 만든 ‘신종 이데올로기’”, 뉴스 플러스. 제33호(1996. 5. 9). pp.26-31.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학기논고집. 제1집(1991)-제6집(1996).
 스톨, 클리포드. 허풍떠는 인터넷. 한경훈 역. 세종서적, 1996.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서울:또하나의 문화. 제1권. 바로 여기 교실에서(1992); 제2권. 각자 선 자리에서(1994); 제3권. 하노이에서 신촌까지(1994).
 조환규. “인터넷과 기술의 남용: 무엇이 살아있

는 교육인가”, 교수신문. 1996. 7. 1, p.5.
 조환규. “책과의 대화: 클리포드 스톨의 〈허풍떠는 인터넷〉”, 부대신문(부산대학교). 1996. 6. 10, p.5.
 차인석. 사회인식론. 민음사, 1987.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회교수 정년기념논문집(1993). pp.81-112.
 Bukland, Michael. *Redesigning Library Services: a Manifesto*. ALA, 1992.
 Crawford, Walt and Gorman, Michael.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and London: ALA, 1995.
 Harris, Michael H. and Hannah, Stan A. *Into the Future: the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Post-industrial Era*. Ablex, 1993.
 Roszak, Theodore. *The Cult of Information: a Neo-Luddite Treatise on High Tec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True Art of Think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Stieg, Margaret F. *Change and Challeng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LA, 1992.

37) 위의책. p.181.